

교차로

출가



총부불교문화회관 상량식
정일 선학원 이사장은 27일 총부 청주시 상당구에 건립중인 총부불교문화회관 상량식을 봉행한다.



선문정사서 법문
삼중 부산 자비정사 주지는 22일 오후 4시 제주도 북문정사 11월 특별법회에서 법문을 했다.



생명나눔회원 만남행사
법장 생명나눔선교회 이사장(수덕사 주지)은 12월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뉴일드호텔 4층에서 회원 만남의 장을 연다.



학교무용 발표회 개최
해광 충북 파라미타회장(법주사 주지)은 6일 청주시민회관에서 안보의식 결의대회 및 학교무용 발표회를 개최했다.



제주 관음불교학교 개강
중원 제주 관음사 주지는 18일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에서 불자들의 신행생활의 밑거름이 될 관음불교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대구BBS 2돌 기념법회
법타 불교대구방송 사장(은해사 주지)은 6일 사부대중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불교방송 개국 2주년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선본사 약사대중 회향
해창 선본사(갯바위) 주지는 19일 높이 2.2m 무게 5백kg 규모의 약사대중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웃돕기 하루찻집 열어
해홍 감로사 주지는 27일 부산 서면 르네상스 커피숍에서 불우 이웃 돕기 하루찻집을 열었다.(051)809-0926



청화스님 염주 자선바자에 기증

청화스님(성문사 조실)은 14일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의 초청으로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법회에서 평생 지니며 수행해 온 염주를 선우측이 추진중인 장학기금 마련 자선바자에 사 용해 달라며 전달했다.

이은자 기자 (eilee@buddhapia.com)

김성동 처녀시 11편 발표

계간 '시와 함께'에...禪 분위기 물씬



은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시를 발표하게 된 것. '스물 몇 살 때였던가 어느 절집에서 었던가/외마치 장단따라 도場釋할 때면/손글추며 따라돌던 아낙하나 있었지/.../대다라니 건너 뛰고 향호진언 빨리 마쳐/장엄염불소복 때려 어둠을 밀어내왔지만/모르겠네 알 수 없네 그냥 다만 서러를 뿐인데/.../바탕근을 조였던가 눈 맑던 수좌스님 (시 '다시 산사에서' 중) 고씨는 김씨의 시를 받아보고는 "읽고 또 읽었다. 맛이 있었다. 격도 있었다. 이다지 잡소리 다 녹아버리게 익은 것을 그냥 몸속에 박아두고 있었던가"라고 존경했다.

이은자 기자

"수행하는 군승모습 보일러"

창립 30돌 맞는 군승단장 이희용 법사



"군승제도가 생긴 지 30년. 그동안 군포교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5명의 군승이 1백명이 넘는 인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군법당이 건립되었고, 많은 장병들이 군에 들어와 불교신자가 되어 사회에 배출되었습니다." 68년 11월 30일 군승을 배출한 이래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희용 군승단장(원주 법우사 주지 법사, 종형)은 군포교의 성과는 한국불교의 커다란 에너지원이 되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쉬움도 없지 않다. 아직도 인사, 법당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잡음이 그치지 않는다. 올해만도 군법사 인사파동과 급려사 재정파동이 있었다. 군무중 본의와 다르게 법복을 벗는 일도 있었다. "진출입 등 군의 특수성으로 자칫 수행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군법사의 본분은 포교사이며 수행자입니다."

수행하는 군승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단과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군포교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군포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단장은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군포교 발전에 헌신하신 스님과 포교사, 모든 불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4개국어 능통...코스보서 식량조달

한국인 첫 세계식량기구 활동 임지영씨



"국제기구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 세계식량기구(WFP) 직원으로 발령받은 임지영(26·한국여성불교연합회 국제부장)씨. 임씨는 WFP 식량조달총제관으로 유고슬라비아 내전지역인 코스보에서 일하게 된다. 임씨는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유학, 토론토대학교와 대학원(정치학)을 졸업했다. "언어능력이나 전공은 별로 눈에 띄게 없었지만 활발한 과외활동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같다"는 임씨는 방학 때마다 국제사무처, 여성불교연합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에서 통역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

등을 해왔다. 임씨는 영어, 일어, 스페인어에 능통하다. "솔직히 분쟁지역인 코스보라 걱정도 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임씨는 "정치는리를 벗어나 부처님의 불어(不二) 정신으로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교차로

재가

만해사상선양회초청 강연
고은 시인(본지 논설위원)은 21일 만해사상선양회초청 강연으로 불교대구방송 7층 강당에서 '11F 시대에 남북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강연했다.



저서 보인 집필차 도미
박경훈 역경위원은 18일 미국으로 집필여행을 떠났다. 3개월 예정으로 <근세불교백년사>와 <경전성립의 역사>를 보인 정리할 계획이다.



초발심 자경문 운동법회
권영일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장은 21일 오후 3시 마포 다보빌딩 15층에서 이창호씨의 강설로 <초발심자경문>과 <발심수행장> 운동법회를 가졌다.



조선시대 불전언해 학술회
홍신선 한국불교어문학회(동국대 교수)는 20일 동국대 학술동계3 세미나실에서 '조선시대 불전언해에 대한 조명'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리마 국제조각심포지엄 참가
박찬갑 한국불교미술인협회장(조각가)은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제 1회 국제조각심포지엄에 참가한다.



삼성화재서 특강
연기영 동국대 법대학장(정부재조물책임법 제정실무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삼성화재 임원진과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조물책임법 입법 추진현황과 보험업계 대응방안에 대해 특강했다.



내달 참선 기초교실 개원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장은 12월 8일 참선의 이론과 자세, 호흡법, 생활참선법 등을 지도하는 참선기초교실을 연다.



태고보우 학술회 및 전서 출판회

대원불교문화연구원(원장 무공스님)은 18일 오후 1시 불교광국 3층 대법당에서 '태고보우국사 사상과 법문 재조명' 2차 학술발표회와 <태고보우국사 전서> 완간판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출판기념회에는 대원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덕암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진흥원 서문각이사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청담대중사 열반 27주기 추모법회

청담 대중사 27주기 추모법회가 15일 서울 구이동 도선사 호국교회에서 열렸다. 주지 동광스님의 개회사로 시작된 법회는 청담스님 육성법어, 지관스님(간상불교문화연구원장) 추모법어, 밀운스님(연백문도회장), 지선스님(연백문도회 부회장)의 추모사, 혜성스님의 인사로 진행돼 청담스님의 생전 유덕을 기렸다. 이 자리에는 문도들 사부대중 8백여명이 참석했다.



인천 자비의전화 개통 5주년

인천 자비의전화(총재 무갈스님)는 14일 교원연합회 강당에서 개통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재 무갈스님을 비롯 도해(인천불교연합회장), 총재(인천불교연 사무총장), 우경(인천 청학사 주지)스님과 부류구경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7번째 자비의전화인 인천 자비의전화는 93년 7월 설립, 현재 12명의 상담원이 불자·시민의 근심을 덜어주고 있다.



'산은 산 물은 물' 출판기념회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산은 산 물은 물> 출판기념회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성철스님문도회 주최로 열렸다. 기념회에는 원택 원영 일감스님 등 문도회 스님들과 원명스님(연등국제불교회관 주지)을 비롯해 한강진(한진영화사 사장) 성낙승(불교방송 사장) 김광삼(현대불교신문 사장) 조정래(작가) 최인호(작가) 정영호(교원대 교수) 홍기상(동국대 교수) 송원호(아주대 교수) 박영호(민음사 사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초의선사 성상 조성 불사 동참 안내



초의문화재단에서는 무안군에서 주최하는 현창사업에 동참하는 생가에 모실 불사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초의다기와 문수차·보현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명차 유통 02-427-7373.4 인터넷 http://www.shinbiro.net/~teancha E-mail :teancha@shinbiro.net

후원:명차 유통 02-427-7373.4
인터넷 http://www.shinbiro.net/~teancha E-mail :teancha@shinbiro.net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소개
1. 초의선사 깨서는 대각동계보존자초의대선사(大覺洞界保存者超師大德)의 사상과 업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차(茶)에 관한 것과, 선(禪)에 관한 것과, 시(詩)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초의선사를 가리켜 시(詩)와(詩)의 삼절(三絶)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초의선사를 말할 수 없으리라(서용운 스님의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 중에서)
2. 5월의 문화인 초의선사(지난해 1997년) 선사의 탄신 211주년인 지난해 5월, 문화인물로 선정 되었습니다.
3. 선사에서 수행정진 하시던 일지암 선사에서 옛 인연의 터에 몇 칸 집을 짓고, 물을 파서 달이 비치게 하였던 일지암 그 후 소실되어 그 터만 남아있는 것을 용운스님께서 1975년부터 복원사업에 진력 하셨습니다.
4. 초의선사 생가복원을 위한 현창사업 초의선사께서 탄생하신 전라남도 무안군(삼향면)에서는 초의 의운 선사에 대한 현창사업을 실시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자 '97.4.19(토) 72명으로 현창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가 복원(무안군 삼향면 황산리에 7.14) 유희비 건립(생애, 업적등 기록), 추모작 전달, 20명(초상화, 유품등 전사) 등의 현창사업을 실시 합니다.
5. 선사의 법손인 용운스님께서는 초의선사 현창사업에 참여하여 생가 복원시 초의선사 성상을 조성하여 봉안 하고자 합니다.
머지않은 시대에 茶山, 秋史, 海屋, 申禮 등 많은 명사들과 교류하며 그들에게 禪사상을 가르치고 한국의 처문화 등을 도입했던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정신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자 합니다.